

『大乘起信論義記別記』의 성립에 대한 재검토*

김천학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에도시대 이후 저자의 진위 문제가 제기되었던 법장의 『大乘起信論義記別記』를 새로운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작성되었다. 『別記』는 904년에 지은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에 처음 보이며, 일본 목록에서는 914년의 『圓超錄』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본 논문은 2017년 5월 12일에 HK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제6회 아젠다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당시 논평자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씨가 성립시기와 진위논증을 나누어 논할 필요가 있다는 논평 내용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22권 (2017. 12) 191p~220p

www.kci.go.kr

에 처음 보인다. 한편 『別記』는 均如(923-973)의 『釋華嚴教分記圓通鈔』에서 처음으로 문헌명으로 인용된다. 중국의 자선(子璿, 965-1038)도 인용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別記』를 읽었다는 것은 밝혀졌다. 그리고 일본의 준코(順高)가 법장의 『起信論別記聽集記』를 저술하고 있는 점을 볼때, 『別記』가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유통되고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別記』는 『기신론』에 관한 다른 저술들이 수문해석을 견지하는 것과 달리 총 35개의 장명으로 구성되어 주석된다. 『別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문과 과문의 내용이 법장의 『삼보장』 「법신장」 「현의장」과 거의 일치하는 곳이 발견될 정도로 법장을 가장 많이 의용하지만, 『기신론』의 문장과는 관련 없는 장명이 포함되어 있고, 법장이 『의기』를 저술한 단계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장의 명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義記』와 『別記』의 사상적 연속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한편, 曇曠의 『起信論廣釋』과도 과문 및 과문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검토 결과 『別記』 쪽이 『기신론광석』보다는 정리된 문장을 보여주는데, 간략화 정도를 통해 본다면 『廣釋』→『別記』의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別記』는 담광이 763년 저술한 『略述』의 내용과도 관련성이 보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宗密의 『圓覺經大疏』를 원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別記』가 曇曠의 『廣釋』 및 『略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밀이 『圓覺經大疏』를 저술하는 823년 이후,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이 저술되는 904년 이전에 법장에게 가탁된 문헌임을 추정하고자 한다.

주제어: 법장, 담광, 최치원 『법장화상전』, 『기신론광석』, 『기신론의기별기』

I. 문제의 제기

『大乘起信論義記別記』(이하 『別記』로 약칭함)는 현재 법장의 저술로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 문헌에 대해서는 에도시대부터 저자의 진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초의 문제제기는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에 나오는 ‘和會如別記中說’의 『별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¹⁾ 단적으로 에도시대의 호탄(鳳潭)은 이 문헌을 고려의 위찬이라고 지적했다.²⁾ 그러나 최근에는 『別記』의 찬술자가 법장이라는 설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³⁾

『別記』는 904년에 지은 崔致遠의 『法藏和尚傳』에 처음 보인다.⁴⁾ 일본의 목록에서는 914년에 칙명으로 작성된 일명 『圓超錄』에 처음 보인다. 한편 『別記』는 均如(923-973)의 『釋華嚴教分記圓通鈔』에서 처음으로 문헌명으로 인용된다. 중국에서는 자선(子璿, 965-1038)도 인용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別記』를 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⁵⁾ 이후 宋의 普觀이 『法界無差別論疏頌要鈔』에서 인용명 없이 『別記』를 인용한다⁶⁾. 普觀은 위 저술 외에도 『釋摩訶衍論記』, 『釋摩訶衍論科』, 『蘭盆經疏會古通今記』를 저술하였다. 그의 『蘭盆經疏會古通今記』 서문에는

1) 望月信亨 1922, 227-234에서 이 문제가 처음 언급되었고, 이후 『佛書解說大辭典』, 1933, 「義記別記」 항목, 清水光幸 1985, 513-514가 있지만, 望月信亨의 논지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2) 望月信亨, 1922, 참조.

3) 清水光幸의 논문에서는 『別記』 제16단에서는 법장만이 구사 가능한 사구분별의 논리가 보인다고 평한다. 또한 吉津宜英, 1991, 145 각주(2)에서도 清水光幸의 설을 수용하여 진찬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문(p.133-134)에 따르면 『別記』에 나오는 ‘西崇福寺’의 寺名을 존중하여 ‘魏國西寺’가 ‘西崇福寺’로 개명된 690년, 즉 법장 48세 이후의 저술이며, ‘魏國西寺’의 寺名이 있는 『義記』보다 늦게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戒環 1996, 177에서는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의 기록을 중시하여, 700년 이후의 저술로 추정한다.

4) 望月信亨 1922, 228.

5) 望月信亨 1922, 231.

6) X46.698c.

우리조사 규봉선사의 우란분경소에 대해서는 옛날에 주석을 지은 사람 가운데 중 밀과 비교할 자가 없다. 강의를 전하여 유통된 것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석벽존자가 처음으로 『기』를 지었고, 고산법사는 그 설을 좇아 널리 연설하며 뜻을 증명하였다. 지원율사 역시 이 서술을 계승하였다.⁷⁾

라고 되어 있다. 孤山은 智圓(976年-1022年)으로 추정되며⁸⁾, 후에 芝園津師(생몰년미상)가 활동하고, 그 후에 普觀이 활동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보관의 활동연대는 북송 말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보관의 저술이 남송 대에 개관된 것을 보면, 그 이후 그의 저술이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⁹⁾ 한편, 普觀보다 앞선 遼志福의 『釋摩訶衍論通玄鈔』(1098년 간행)에서 『別記』가 14회 정도 인용되며¹⁰⁾, 남송시대가의 한 사람인 師會(1102-1166)는 『般若心經略疏連珠記』에서 『別記』의 명칭은 인용하지 않지만 법장의 저술로 인식하고 내용을 취의해서 인용하고 있다.¹¹⁾ 이로써 북송과 남송, 그리고 요에 걸쳐 『別記』가 유통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에서 10세기 이후 12세기에 걸쳐 『別記』의 활발한 유통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의기』와 『別記』 간에는 법장의 기신론 사상의 연속성이

7) 『蘭益經疏會古通今記』 「吾祖圭峯禪師之疏蘭益也。窺古作者莫之與京。講授流通爲日固久。石壁尊者初爲之記。孤山法師因循其說廣演證義。芝園津師亦繼有斯述」(X21.483a06)

8) 滋野井恬 1969, 70.

9) 大塚紀弘 2010, 1-21.

10) 한 예로 권3에 「別記三十三四謗章」으로 장문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단 이 저술을 법장의 저술로 인식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11) 「疏主曰。體用合說故云大乘。三大二運即其義也。又疏主明乘體中。則以無分別智所依真如互爲兼。正攝餘勝行爲乘體性。明業用中。乃約三佛性中自性爲所乘。引出爲能乘。至得果爲所至處。又約運因成果等義。爲乘業用。然今此疏。乃取到岸爲用。證真爲體」(T33.561a) 밑줄친 부분이 ① 釋題目으로 부터의 취의이다. (T33.561b)에서도 正約運因成果也。而義有三。一由斯妙慧者。運行令增也。二生死過盡者。運惑令滅也。三真空際者。運理令顯也。初一是能。後二是所。와 같이 취의한다.

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적어도 최치원의 『법화상전』 이전에 법장에 가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같은 추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의기별기』의 구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언급한 후, 성립시기 문제와 저자 진위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두 주제는 중복이 불가피하지만, 전자는 주로 법장 저술의 인용문제를 통해 다루고, 후자는 그 외의 인용문제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II. 장의 명칭과 『기신론』

『別記』는 독특한 서술방식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불교에 다대한 영향을 미친 원효의 『기신론소』, 법장의 『기신론의기』는 수문해석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원효의 『기신론별기』 역시 수문해석을 견지한다. 그런데, 『別記』는 수문해석방식이 아니다. 『기신론』의 문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취하여 소제로 삼거나, 『기신론』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적시하고 과문형식을 통해 설명한다. 『別記』는 총 35장에 이르는 장명을 제시하여 『기신론』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각 장명은 과문형식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의 명칭 역시 『기신론』 내용을 해설하기 위한 장치로써 넓게는 과문에 속하는 것이다.

우선 『別記』의 구성상의 특징을 알기위해 아래의 <표 1>과 같이 35개의 장명과 『기신론』 문장을 배대한다. 『기신론』의 문장은 대정신수대장경 수록의 쪽과 단을 표시한다.

〈표 1〉 장명과 『기신론』 본문의 관련

번호	장명	『기신론』 본문(T32)	비고
①	釋題目	575b8	十二門論 및 十二門論宗致義記 등 활용
②	頌中敬意	575b12-17	僧實에 대한 과문 없음. 因緣分에 대한 장명 없음
③	佛實中義		
④	法實中藏義		
⑤	用大唯善義		
⑥	覺不覺義	576b10-17	
⑦	釋(本覺)隨染二相義	576c05-576c19	
⑧	釋本覺義		⑥ 가운데 본각의 부연
⑨	本有修生義		⑥ 가운데 본각 시각 부연
⑩	生滅因緣中七科義	577b03	
⑪	生滅中一科義	577c26-578a4	분별생멸상 가운데 무명과 경계의 관계를 뽑아냄
⑫	染法熏中四科義	578a21-578b06	
⑬	淨法熏中七科義	578b6-578b24	
⑭	略科文	579c25까지	
⑮	分別發趣中四種發心義	580b15	對治邪執은 제외됨
⑯	科釋正行義	582a16-582a26	수행 중 제5 지관문
⑰	色心不二中一義	579c14-	
⑱	釋賴耶識有感義		
⑲	如來藏中恒沙功德義		
⑳	生滅不生滅和合成梨耶義	585a4-	
㉑	九相義		
㉒	真如二義		
㉓	智淨不思議相義	576c5	⑦ 의 부연설명
㉔	覺體相中四鏡義	576c20-	
㉕	始本相依文		
㉖	染法熏習中無明安心各有二義	578a21	
㉗	淨分緣起中有四句義		
㉘	生滅門中真妄緣起義		
㉙	法身義		三寶章 「法身章」
㉚	真妄心境四句義		三寶章 「玄義章」 眞妄心境8
㉛	二諦無礙義		三寶章 「玄義章」 二諦義7
㉜	二諦義		三寶章 「玄義章」 二諦義7
㉝	染淨義		
㉞	如來藏		
㉟	四謗義		

우선, ① 釋題目부터 ⑩ 科釋正行義까지는 수문해석은 아니지만, 『기신론』 문의 순서에 따라 장명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⑪ 色心不二中一義부터는 문제 중심으로 장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신론』 문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 ⑫ 法身義부터 ⑬ 二諦義까지는 법장의 『三寶章』 가운데 「法身章」, 같은 『삼보장』 「玄義章」 가운데 「眞妄心境八」과 「二諦無礙七」을全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신론』 문장과 관련이 없다. 「二諦」라는 말 또한 『기신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別記』 독자적 해석에 해당한다¹²⁾. ⑭ 四謗義도 『기신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 의식이다. 四謗은 언설상의 네 가지 오류에 해당하는 增益謗, 損減謗, 相違謗, 戲論謗으로써 『기신론』 주석서에서는 『杏雨書屋本』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원효 『기신론소』에서도 다루지만,¹³⁾ 『의기』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문제이다.

또 ① 釋題目부터 ⑩ 科釋正行義까지의 장명을 통해서 볼 때 두드러지는 것은 첫째, 『기신론』의 귀경계를 해석할 때 ③ 佛寶中義 ④ 法寶中藏義는 있어도 僧寶에 대한 해석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⑭ 略科文은 ⑬ 淨法熏中七科義까지 논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장명이다. 특히, ⑨ 本有修生義는 『의기』를 저술할 때는 관심이 없었던 문제이다. 원효 또한 관심이 없었다. 셋째, ⑬ 淨法熏中七科義는 『기신론』 「解釋分」 「顯示正義」에서 끝난다. ⑮ 分別發

12) 岡本一平 2017, 논평. 2017년 5월12일 HK 연구단 제6회 아젠다학술대회에서의 해당 논문의 논평자였던 오카모토 잇페이의 논평내용 중 일부를 각주로 첨언한다. “보충하자면, 『三寶章』은 『賢首國師寄海東書』(691~712年頃) 가운데 「玄義章等雜義一卷」(新纂58,559上22)에 상당한다. 『寄海東書』에는 「起信論疏兩卷」(同23)의 기재가 있기 때문에 『法藏別記』를 『法藏義記』의 초고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法藏別記』가 법장의 진찬이라고 해도, 『法藏義記』 이후일 것이다. 또한 『三寶章』의 이본, 金澤文庫所藏·稱名寺本 『華嚴經章』(內題、外題는 「華嚴七科章」, 湛香山澤本, 1316年寫)에 주목해야 한다. 이 사본에는 『三寶章』의 7종 장명을 열거한 직후에 「並未入疏」라고 한다(현행본에는 없음). 이 「疏」를 「探玄記」라고 하면, 『三寶章』은 현행본 「探玄記」 이전의 저작이다(現行本 「探玄記」에 「三寶章」 「十世章」의 기술이 있고, 『學僧 湛睿의 軌跡』 金澤文庫, 2007年, 78쪽, 岡本一平 執筆部分)”

13) 池田將則 2012, 88-89 각주64) 참조.

趣中四種發心義는 「分別發趣道相」을 논하는 부분이고, ⑩ 科釋正行義은 修行信心分을 논하는 장명이기 때문에 결국 「解釋分」의 對治邪執을 건너뛰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제별로 다루었기 때문에 ① 釋題目부터 ⑩ 科釋正行義까지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⑪ 色心不二中一義부터 다시 다루면서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別記』는 35개의 장명을 통해 『기신론』을 해석하고 있지만, 수문해석도 아니면서, 『기신론』 문장과는 관련 없는 장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장이 『의기』를 저술할 단계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四謗章 혹은 本有修生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기』와의 사상적 연속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연속성이 약한 장명이 있기에 과연 『別記』를 법장 저술로 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과문과 어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성립문제와 진위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別記』의 성립문제와 진위문제

1. 성립문제

성립문제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법장 저술 간의 성립시기 문제에 한정한다. 우선, 논평자 오카모토(岡平)의 지적처럼 『別記』는 진찬이라해도 『義記』 이후의 저술이다. 『別記』와 그 외의 법장 문헌과의 관련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㉔ 法身義부터 ㉚ 二諦義까지의 4장이 『삼보장』의 관련 부분과 과문전체가 일치한다. 『삼보장』의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㉙ 二諦無礙義와 ㉚ 二諦義는 같은 『삼보장』 「현의장」의 이제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 장명으로, ㉙ 二諦無礙義는 전부 일치하지만, ㉚ 二諦義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과문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 「현의장」이 「二顯義

者,有四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別記』에서는 「一辨相. 二顯義. 初辨相, 如餘說. 二顯義者,有四門」으로 되어 있어, ‘辨相’이라는 과문이 더해졌을 뿐이다. 이것은 ㉔ 二諦義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한 과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如餘說’처럼 구체적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二顯義者,有四門」부터는 약간의 문자의 동이 내지는 탈자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과문 구조를 갖고 있다¹⁴⁾. 이로써 『別記』가 『삼보장』의 「法身章」「玄義章」 성립 이후에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別記』에는 『十二門論宗致義記』도 활용된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표 1>의 ① 釋題目에서 볼 수 있다. 『別記』에서는 대승의 의미에 대해서 7義와 3義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가운데 7義는 명칭 전거의 순으로 전개하는데, 『十二門論』에 의거함을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 설명에서 『十二門論宗致義記』의 인용이 확인된다. 『別記』에서 제시하는 대승의 7義는 다음과 같다.

① 道上故, ② 能至大處故, ③ 大人所乘故, ④ 能辦大事故, ⑤ 大士所乘。亦名多人所乘, ⑥ 盡法源底故, ⑦ 攝法周備故

이 가운데 ①은 일치하는 문헌을 찾을 수 없으며, ②는 정확히 『十二門論宗致義記』와 일치한다. ③은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④와 ⑥은 『화엄경』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고, ⑤ 가운데 大士所乘은 길장, 규기 등의 표현과 일치하는데, 多人所乘은 『十二門論宗致義記』에서만 多所乘으로 확인된다. ⑦은 규기의 문헌에서만 일치한다. 단 한 두 예지만 ②와 ⑤로부터 『別記』가 『十二門論宗致義記』 이후에 저술되었다고 성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부연하면 대승의 7義를 언급하는 『義記』에서는 전거를 『十二門論』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十二門論』에서는 6義이다. 1義는 아무런 언급없이 『義記』

14) 『삼보장』에는 「二諦無礙」를 논할 때 「二諦無礙有二門說. 一約喻. 二就法」이라고 시작한다. ㉔ 二諦無礙義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㉔ 二諦義에서 다루는 「二顯義者有四門」은 과문상 돌출한 부분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別記』에서는 따로 떼어서 구분한 듯하다.

』에서 덧붙인 것이다.

한편, 『의기별기』는 법장의 『무차별론소』도 인용한다. 예를 들어 『別記』「第十九如來藏中恒沙功德義」에서 여래장의 네 가지 뜻 가운데 세 번째 뜻을 설명하는 가운데, 「三爲因義。謂能內熏衆生令厭求起行等」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밑줄친 부분이 법장의 『無差別論疏』에 「又起信論中，真如內熏衆生令厭求等」이라는 문장과 일치한다. 『기신론』에는 없는 문장이므로 『무차별론소』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기별기』가 법장의 저술일 경우 자신의 저술을 인용하는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㉔ 二諦義에서 ‘如餘說’이라 하고는 있지만, 「玄義章」중 「이제의」를 전제하거나 다른 항목을 대폭 활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인용관계를 밝히지 않은 것은, 법장이 『탐현기』에서 「십세장」의 명칭을 들어 전거로 활용하거나, ‘如別章’ ‘如別說’ ‘如別記’라는 표현으로 다른 저술을 지시하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의기별기』를 법장의 진찬으로 볼 경우 『十二門論宗致義記』와 『無差別論疏』보다 늦은 690년 경이 될 것이다.¹⁵⁾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례적 인용 방식을 고려할 때 『別記』의 성립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 진위문제

1)曇曠의 『起信論廣釋』과의 관계

(1) 智淨不思議業相의 관계

다음은 曇曠의 『起信論廣釋』과의 관련에 주목하여 성립시기의 문제에서 제기된 진위문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曇曠과의 관련은 『別記』 전체에 걸쳐 상당히 보이는데, 우선 전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부분을 검토한다. 『別

15) 저술시기에 관련해서는 吉津宜英, 1991, 130-4.

記』 제23智淨不思議業相이 여기에 해당되며, 『기신론』의 「復次, 本覺隨染分別生二種相, 與彼本覺不相捨離. 云何爲二. 一者, 智淨相. 二者, 不思議業相」¹⁶⁾에 대한 해석이다. 양 문헌의 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別記』와 『廣釋』의 智淨不思議業相에 대한 과문

『別記』	『廣釋』
略作十門分別	略以十門分別此二
1. 一釋名	1. 一者釋名
2. 二出體	2. 二者出體
3. 三約體用分別	3. 三顯體用
4. 四約染淨分別	4. 四者染淨
5. 五約二利分別	5. 五約二利
6. 六三身分別	6. 六者三身
7. 七四智分別	7. 七者四智
8. 八二智分別	8. 八者二智
9. 九本末	9. 九者因緣
10. 十因緣所起分別	10. 十者得果

〈표 2〉와 같이 양 문헌은 10문으로 분과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그 가운데 『別記』의 9.九本末의 내용이 『광석』에는 없고, 10.十因緣所起分別이 『광석』의 9.九者因緣과 내용상 서로 같다. 또 각 항목마다 ‘分別’ 2자가 있고 없음이 다르다. 이로써 두 문헌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어 『別記』의 진위문제를 추정하기 위해 두 문헌의 각 문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문헌의 선후관계를 검토한다. 비록 내용이 같아도 선후관계를 확정하기에는 곤란하다. 이에 주로 간략화 된 문헌이 어느 쪽인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면서 선후관계를 추정할 것이다. 각 문장은 CBETA와 SAT를 활용하였다.

16) T32.576c5-6.

① 釋名

『別記』	『廣釋』
智者始覺智也.淨者離染同本覺.此中有智之淨及即智淨也.不思議業者.果德他*用.故名爲業.非下地測量.故不思議也.此中亦有不思之業及不思即業等可知也 他=化 【甲】	所言智者謂始覺智.淨謂離染同於本覺.果德作用故名*業. 非下地測名不思議. 二相皆通持業依主.相者狀也.本覺隨染有此體用.當相狀故,即相之相,二釋皆*通*名+(爲) 【甲】 *皆=亦 【甲】

① 釋名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다. 『別記』에서는 智와 淨, 不思議와 業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 하나 ‘此中有’ ‘此中亦有’(『別記』 중 밑줄이 없는 부분)로 문법적 해석 문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반면, 『廣釋』은 나중에 ‘二相皆’ 이후 두 관계가 持業釋과 依主釋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여기까지는 두 문헌이 같은 내용인데, 『廣釋』에서는 ‘相’의 의미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17) 『別記』에는 없다. 두 문장의 구조를 보면 설명 내용은 『廣釋』이 복잡하며, 설명방식은 『別記』가 구체적이다.

② 出體

『別記』	『廣釋』
生滅門中隨染本覺爲體	此二皆以生滅門中隨染本覺而爲自體. 以說隨染生二相故

② 出體 역시 내용이 같으며, 『別記』 쪽이 간략화 되어 있다. 이 가운데 『廣釋』의 ‘隨染生二相’이라는 표현은 『別記』 제7장의 장명과 유사하다(章名の 목록에서는 ‘釋隨染二相義’이나 뒤의 설명에서는 隨染生二相). 『別記』 제9장

17) 『廣釋』의 축약형태가 『略述』이다. 이 부분은 『略述』(T85.1097a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起信論註』(T85.1176b15)에서 ‘述曰’로서 같은 부분을 해석할 때 『약술』을 인용함을 알 수 있다.

에서는 本覺의 ‘本有修生’을 설명하기 위해 이 어구를 사용하는데, ‘隨染生二相’은 『기신론』의 ‘本覺隨染分別生二種相’에서 온 어구이고, ‘本覺隨染生二種相’이라고 ‘種’이 추가된 표현은 『삼보장』 「삼보장」에서도 구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상 『別記』와 『廣釋』의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③ 三約體用分別

『別記』	『廣釋』
初一體.後一用	初智淨相還淨時體.不思議業相還淨時用.本覺有此當本末故

③ 約體用分別 역시 『別記』쪽이 아주 간략하다. 여기서는 간략화 문제에 덧붙여 『원효소별기』와 『의기』, 『광석』에서 사용한 ‘還淨’이라는 어구에 주목하고자 한다.

- A. 元曉疏 : 言智淨相者, 正明隨染本覺之相. 不思議業相者, 明此本覺還淨時業也.
- B. 元曉別記 : 智淨相者. 明本覺隨染還淨. 不思議業者, 是還淨之用.
- C. 義記 : 言智淨相者, 明本覺隨染還淨之相. 不思議業相者. 明還淨本覺業用之相

『別記』에서 원효와 법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還淨’을 굳이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의기』를 저술할 때는 『원효소』 내지는 『원효별기』에 의거하였지만, 『別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예문 ABC에서는 두 상을 체와 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B와 C에

서 ‘用’이라는 표현이 나올 뿐이다. 그렇다면 『광석』이 예문 ABC 중 어느 문헌을 통해 두 상의 관계를 체용으로 이해한 구문을 『別記』 쪽에서 축약하였다고 보는 편이 설명하기 쉽다. 왜냐하면 『別記』가 법장의 저술이라면 『의기』에서 강조한 ‘還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무시하고, 체와 용의 개념을 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染淨分別

『別記』	『廣釋』
此二俱淨,以返染故. 亦可俱染,以隨染所成故	此二俱淨,以皆返染而顯說*故. 亦可俱染,以皆隨染之所成故 *說=現 【甲】

④ 染淨分別도 마찬가지로 『廣釋』→『別記』로의 간략화가 간취된다.

⑤ 約二利分別

『別記』	『廣釋』
初一自利,非無利他,後一利他,非無自利	初一自利,非無利他*. 謂以自他利爲他自利故 * 他+ (後一利他非無自利) 【甲】

⑤ 約二利分別에서도 『別記』가 간략하며, 『광석』의 갑본이 『別記』와 일치한다. 그리고 『광석』의 ‘謂’ 이하 구문은 『別記』에 생략되어 있다.

⑥ 三身分別

『別記』	『廣釋』
有二義. 一初爲報身,後爲化身. 二初通法身及自受用身,後通化身及他受用身	初通法身及自受用,後*通化身他受用,體相僣細二利斷故 * [後通…用] 七字- 【甲】

⑥ 三身分別은 『別記』가 잘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광석』에서 자수용, 타수용에 ‘身’字가 없지만, 『別記』에는 정확히 ‘身’字를 넣어 표현했고, 『광석』의 「體相麤細二利斷故」는 전체에 대한 부연설명인지, 부사의업에 대한 부연 설명인지 알 수 없으며, ‘체와 상, 추와 세, 자리와 이타의 구분이 끊어지기 때문이다.’고 읽을 수 있겠지만, 왜 이런 어구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別記』처럼 각각 報身, 化身으로 정의 한 후에 두 번째에 ‘通’의 관점을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광석』은 ‘通’의 관점만 있지 원래 두 상과 삼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別記』가 먼저일 경우,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광석』과 같은 설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⑦ 四智分別

『別記』	『廣釋』
初一圓鏡智.亦通平等性.後一通三智	初一鏡智亦平等性*.普照之智體故.後通三智.由得平等妙察性成化事故 *性+(普現) 【甲】

⑦ 四智分別도 『別記』 쪽이 간결하다. 또한 설명도 ‘初一’, ‘後一’처럼 명확하고, ‘亦通’처럼 主와 兼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광석』은 6. 三身分別과 같이 주와 겸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역시 『광석』이 먼저 있고 『別記』가 이것을 인용하였다고 보는 편이 좋다.

⑧ 二智分別

『別記』	『廣釋』
初一理智.後一量智	初即正體如理之智.後即後得如量之智.返照自體起外用故

⑧ 二智分別에 대해서도 3. 三約體用分別에서처럼 『別記』가 아주 간략하다.

⑨ 九本末/⑩十者得果

『別記』	『廣釋』
初一本,後一末	初以對染 同本智淨 爲所生 果 .後以對機 無方大用 爲所生 果 .既有因緣必有果故

이 부분은 양 문헌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別記』에서 구분하는 본말은 ① 釋名의 『광석』에 나오는 ‘本覺有此當本末’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廣釋』의 굵은 글씨는 아래의 『의기별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⑩ 十因緣所起分別 / ⑨ 九者因緣

『別記』	『廣釋』
智淨.以體相內熏爲因.用本外熏爲緣. 同本智淨爲果 .不思議業.以智淨爲因.衆生內熏爲緣. 無方大用爲果 .	初以體相內熏爲因.初*以體*彼用大外熏爲緣.後以智淨爲生起因.衆生染機爲發起緣.諸法無有非因緣故 * [初] - 【甲】 【體】 - 【甲】

이 부분의 『別記』는 두 상에 대해서 因·緣·果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석』의 ⑩ 十者得果 설명에 나오는 ‘果’부분을 수렴하고 있다. 즉 『別記』는 『광석』의 ⑨ 因緣과 ⑩ 得果를 ⑩ 因緣所起分別에 포함하고, ⑨ 本末의 입장을 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別記』와 『광석』의 10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1. 釋名>부터 <8. 二智分別>까지는 『別記』 쪽이 정리된 문장이다. 또한 9와 10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別記』쪽이 내용을 정연하게 정리하였다. 간략화 정도를 통해 본다면 『廣釋』→『別記』의 방향을 상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別記』의 이 부분은 『廣釋』에서 隨染을 標,別,辨相의 셋으로 나누는 가운데 別에 해당한다. 標에 해당하는 부분은 『別記』의 第七隨染生二相에서 <표 3>과 같이 볼 수 있다.

〈표 3〉 隨染生二相에 대한 비교

『別記』	『광석』 (T85.1125c23)
<p>第七隨染生二相中.</p> <p>問.隨何染得生此相.答.此有三. 一智淨相.隨自心中無明法力熏習等.而起 不思議業.隨生染機而現形化用.</p> <p>二此二俱隨自染而起.由斷自染方能起用 故.不思議業相亦爾.隨自染中.</p> <p>三俱隨他染.謂諸菩薩修萬行得佛果等皆是 隨衆生無明故有此事. 若廢*染機.即無修 無得一昧相也. 廢=廢 【甲】</p>	<p>論.復次至不相捨離 釋曰.上廣始覺.下廣 本覺.於中有二.先明隨染.後顯性淨.初中有 三.標別辨相.此初標也.(中略)</p> <p>隨生相者. 此中有義.謂隨自染生智淨相.以說從染得 智淨故.由隨他染生不思議業.以化染生起勝 業故.</p> <p>有義.俱隨自染而起.謂本覺心具有體 用.隨染顯體成*智淨相.隨染顯用起 不思議業.既斷自染方能起用故不思議 亦隨自染.*成=生 【甲】</p> <p>有義.俱隨他染而起.謂諸菩薩修行得 果顯現法身起諸業用.皆隨衆生染有 此事.若度*染機無修無得.唯是真如 一味相故.若爾此二應是始覺.*度는 廢의 誤?</p>

위의 <표 3>와 같이 제7장 隨染生二相의 일부가 『광석』의 과문 가운데 標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광석』의 ‘有義’는 인용형식이 아니며, 「혹자」는 정도의 말이다. 『광석』에서 ‘自染’과 ‘他染’의 분류에 철저하여 세 가지 ‘有義’를 설명하는 반면, 『別記』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명시한 후에, 그 가운데 첫 의미에 대해서는, 『광석』에서 ‘自染’과 ‘他染’을 통해 설명한 반면에, 『別記』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용 검토 결과 『광석』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別記』에서는 제8장, 제9장과 관련있다. 그 중 第九眞如門에서는 智淨相과 始覺

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에 대한 『別記』의 결론이 『광석』과 다음과 같이 거의 일치한다.

『別記』	『광석』 (T85.1126a)
唯一緣起, 猶如圓珠, 隨舉一門, 無不收盡	此緣起理, 猶如圓珠, 隨舉一門, 無不收盡. 故智淨等與彼始覺異*等皆無有妨 *不+ (異) 【甲】

『광석』에서의 ‘智淨等’의 등은不思議業相을 가리키며, ‘此二應是始覺’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마지막 문장이다. 智淨相과不思議業相에 대해서는 앞의 <표 3>에서 양 문헌에 과문이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였는데, 지금 일치하는 어구는 상호간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렇다면 『別記』가 『광석』의 내용을 제7장과 제9장 그리고 제23장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別記』는 법장의 『三寶章』 二諦義를 인용할 때도 둘로 나누어 인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의 일치를 고려할 때 역시 『別記』가 『광석』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용하였다고 생각된다.

(2) 平等緣의 관계

『기신론』에서 用熏習을 差別緣과 平等緣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別記』에서는 제13淨法熏中七科義에서 다루어진다. 그 중 平等緣 가운데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廣釋』과 일치한다.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別記』와 『廣釋』의 平等緣

『別記』	『廣釋』
平等緣中有六	平等緣者.亦有六義
一平等人.如論佛菩薩故	一平等人.一切法佛及菩薩故
二平等願.如論皆願度故	二平等願.皆願度□等衆生故
三平等心.如論自體熏等故	三平等心.自然熏習常不捨故
四釋平等行.如論以同體智力故 謂了知自他同一體性.知同之智.名同體智.	四平等行.同體智力爲行體故
五平等益.如論見聞等故.	五平等益.隨應見聞現作業故
六令平等機見平等相.如論依三昧見佛故	六平等機.依於三昧平等見故

이상과 같이 두 문헌에 보이는 平等緣의 6가지 명칭은 6번째 명칭이 일부 다를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리고 6가지 명칭에 대해서 『別記』가 일관되게 『기신론』을 통해 교증을 삼은 반면에, 『광석』은 자신의 말처럼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 또한 『別記』의 밑줄 친 부분은 『광석』에서는 본 설명 조금 아래에 「自他體同名爲同體.知同之智名同體智」(T85.1147b) 라고 되어 있고, 밑줄친 표현은 동일하다. 4.釋平等行의 설명에서 『광석』에 사용하는 ‘行體’라는 말 대신에 ‘同體智’를 강조하기 위해 『광석』의 설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別記』의 교증은 『기신론』의 「平等緣者. ①一切諸佛菩薩, ②皆願度脫一切衆生, ③自然熏習恒常不捨.④以同體智力故, ⑤隨應見聞而現作業.⑥所謂衆生依於三昧, 乃得平等見諸佛故」(T32.578c27-29)를 가리킨다. 『別記』에서 ‘如論’을 일괄적으로 붙여 『기신론』에 근거함을 밝힌 것은 직접 『기신론』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4.釋平等行와 6.令平等機에 대해서는 『別記』에서는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 『광석』의 문장에 일일이 ‘如論’을 붙이면서 아울러 『광석』의 문장을 조정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상으로 과문 및 어구를 통해서 『광석』과 『別記』와의 관련을 검토했다. 전체적으로 『別記』가 『광석』보다 간략화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광석』에서는 한 과문에 포함된 내용을 『別記』에서 장명을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것

은 앞에서 법장의 『삼보장』의 내용을 두 장에 걸쳐 인용하는 형식과 유사하여, 『別記』가 『광석』을 활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담광의 『기신론』 관련 저술은 『약술』과 『광석』이 있다. 『약술』은 간기에 의해 763년 저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광석』 역시 750년대 혹은 760년 초에는 완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저술시기를 『광석』→『別記』로 설명할 수 있다면 『광석』의 내용은 『약술』에도 보이기 때문에, 『別記』의 찬술은 763년 이후가 될 것이다¹⁹⁾.

(3) 7식에 대한 견해

元曉와 法藏의 『起信論』 해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7식에 대한 해석이다.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데,²⁰⁾ 법장은 『起信論』에서 제7식을 인정하지 않고, 원효는 적극적으로 제7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別記』에서는 제7식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아래 문장과 같이 제7식을 인정하는 듯하다.

둘째, 生滅 중에 龐는 七識이다. 경계의 처음과 끝에서 거친 양상이 드러나기 때 문이다. 『능가경』에서 말하는 상의 생멸이다. (二生滅中, 龐者是七識, 隨境起盡, 相龐顯故. 楞伽經中名為相生滅也)²¹⁾

여기서 ‘龐者是七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와 비슷한 발상

18) 張雪松 2016, 230-242.

19) 岡本一平, 2017 논평. “즉 김천학은 양문현이 참조관계 하에 성립했다는 논증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진위증명의 관점에서 양문현의 관계를 고찰할 경우, 『廣釋』→『法藏別記』의 순서를 확정해야 하는 어려운 증명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후의 논지를 통해 『廣釋』→『法藏別記』의 주장을 보충함과 동시에, 나아가 종말의 저술을 참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0) 최근의 논문으로는 김성철, 2015, 1-28.

21) T44.291b22-23.

을 하는 경우는 원효의 『기신론소』에서 볼 수 있다. 우선 경증은 원효와 법장의 주석에서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원효가 먼저이다. ‘相麁顯故’는 ‘其相麁顯’이 원래 표현이다. 다음 ‘麁者是七識’과 관련해서는 『기신론소』의 ‘初言智相者,是第七識,麁中之始’라는 표현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기신론별기』에서는 ‘後六麁相,是餘七識’이라고 한다. 즉 6주를 나머지 7식이라 하는 표현에서 『의기별기』의 ‘麁者是七識’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²²⁾ 이것은 명백히 『의기』와는 상반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의기별기』를 법장의 저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한편, 『광석』에서는 ‘以彼六麁是七識故’를 주장하는 ‘有義’를 비판하는데,²³⁾ ‘有義’ 가운데의 위 문장은 원효의 『기신론별기』에서 가져온 문장이며, 원효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광석』은 『의기별기』도 비판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의기별기』보다 『광석』이 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원효의 주장과 상통하는 ‘有義’는 그 다음 ‘有義’에 의해 비판되는데, 그것이 바로 법장 『의기』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만약에 『광석』이 『의기별기』를 인용했다고 하면, 『광석』은 법장설로 법장설을 비판하는 상황이 되며, 이것은 『광석』의 검토결과 원효보다 법장을 높이 사는 담광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즉, 『광석』은 『別記』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며, 지금까지 간략화로 증명된 것처럼 문헌은 『광석』→『別記』의 순서로 성립된다.

2) 『四分律鈔搜玄錄』과의 관련

『別記』에는 志鴻의 『四分律鈔搜玄錄』과의 관련도 보인다. 『別記』㉑ 釋題目에서에서는 대승의 7가지를 든 후에, 대승에 3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

22) 이것은 그 앞의 문장인 「是故楞伽經云.寂滅者名為一心.一心者名如來藏」라는 문장이 『기신론소』 『기신론별기』와 일치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의기』와 『광석』에는 없는 문장이다.

23) T85.1130a 전후를 참조바람. 한편 이 견해는 ‘有義.此說理教相違’(T85.1130b15)라는 문장부터 비판된다.

우선 7가지의 대승은 『의기』에서 「又有七義釋大乘如十二門論辨」(T44.245c)라고 한 것에 준한 해석이다. 다음에 다시 세 가지 과문으로 대승을 해석한다. 과문은 다음과 같다. 「一辨名, 二明體性, 三業用」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三業用」의 과문에서 다음과 같이 志鴻의 『四分律鈔搜玄錄』과 정확히 일치한다.

〈표 5〉 「三業用」의 과문비교

『別記』	『四分律鈔搜玄錄』(X41.845a)
三業用	通而言之乘有三種之義
一約三佛性義	
二約運因成果義	
一運行令增	一運行令增
二運惑令減	二運惑令減
三運理令顯	三運理令顯

志鴻은 생몰년대를 알 수 없지만, 그와 동문인 省躬律師가 707년부터 709년 사이에 득도하여 道恒律師에게 계율을 배웠다는 기록이나, 澄觀이 766-779년 사이에 그의 저술에 서문을 쓴 것으로 볼 때²⁴⁾, 志鴻은 法藏보다 후에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는 志鴻이 법장의 『別記』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그런데 양 문헌의 문장을 비교했을 때 약간의 의심이 든다. <표 5>에 이어서 양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別記』	『四分律鈔搜玄錄』
初是能, 後二是所. 此即是涅槃中三德謂般若, 解脫, 法身	即此三種. 具於諸三德. 行增般若德. 惑滅解脫德. 顯理法身德

위와 같이 양 문헌이 ‘삼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 『別記』

24) 佐藤達玄 1978,32-54.

』는 ‘三德’이 ‘涅槃三德’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승’의 세가지 의미를 能所로 구분한 후에 간략화하였다. 이러한 문장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四分律鈔搜玄錄』이 먼저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이 성립한다면 『別記』의 성립은 澄觀이 『四分律鈔搜玄錄』에 서문을 작성한 766-779년 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3) 一行과의 관련

遼 覺苑의 『大毗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義釋演密鈔』에는 『소』 문장 가운데 「非見非顯現者. 心體向外名能見相. 變似外境名能現相. 反此名非見非顯現也」라고 하여 밑줄친 부분이 『別記』二十一九相義七門分別의 문장과 일치한다. 『소』는 일행(683-727)이 필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²⁵⁾ 연대로 보았을 때는 법장보다 약간 후이다. 따라서 『別記』가 법장의 후기저술이라면 일행이 법장의 저술을 인용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보자면, 『別記』 쪽에서 일행의 문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논의에서 더욱 더 확실해질 것이다.

4) 宗密과의 관련

『別記』 제10 生滅因緣中七科義에서는

“第十因緣有三義. 一淨心爲因. 無明爲緣. 二妄境爲緣. 本識爲因. 此二如疏. 三以前因緣爲因. 後因緣爲緣. 以本來融通一心故. 思准之.”(T44.289a)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 중 “此二如疏”라고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소』는 과연 어떤 문헌을 가리킬까. 『別記』를 법장의 것으로 믿었던 順高의 『기신론별기청집기』 권상본에서는 『의기』를 지칭하는 것

25) 山本匠一郎 2012, 73-102, 清水明澄 2007, 25-39.

으로 보았다.²⁶⁾ 그러나 『소』로 불리는 『의기』, 『탐현기』 『무차별론소』에서는 전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종밀의 『圓覺經大疏』에 다음과 같이 “楞伽起信. 皆以淨心爲因. 根本無明爲緣. 生業識等”(X9.376b)이라고 하여 인연의 세가지 뜻 가운데 첫 번째와 일치하는 어구가 나온다. 이것을 주석한 『대소석의초』에는 “又淨心爲因無明爲緣. 生三細. 業識爲因. 境界爲緣. 生六麤.”(X9.690c)라고 하여 여기서도 첫번째는 일치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別記』에서 언급된 疏가 종밀의 『원각경』 관련 주석서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別記』의 독자적 해석일 수 있는 세 번째의 인연의가 『광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三者以前因緣爲生滅因. 以後因緣爲生滅緣. 本末相依不相離故龜細鎔融*唯一心. 故依此因緣理方圓. 顯諸生滅相(T85.1132c23) **鎔融=融通 【甲】

명칭이 일치할 뿐 아니라 설명도 유사하다. 그런데 『광석』의 첫째와 둘째의 인연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의기』와 관련이 있다.

〈표 6〉 인연의에 대한 『광석』과 『의기』의 관련

『광석』(T85.1132c)	『의기』(T44.264b)
言因緣者. 有其三種. 一者黎耶心體不守自性. 是生滅因. 根本無明熏動心體. 是生滅緣. 依此因緣依此因緣*成黎耶識.* 【依此因緣】 - 【甲】	標中言因緣者. 梨耶心體不守自性. 是生滅因. 根本無明熏動心體. 是生滅緣.
二者現識心體復起龜識. 是生滅因. 外妄境界熏起諸識. 是生滅緣	又復無明住地諸染根本. 是生滅因. 外妄境界動起識浪. 是生滅緣.

26) 大日本佛教全書 제93권, 佛書刊行會編, 20-21.

위 <표 6>을 보면 첫째의 인연의는 『의기』와 일치한다. 둘째는 생멸연에서 거의 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담광의 『기신론약술』을 보면 “二者無明住地諸染根本是生滅因。外妄境界熏起識浪是生滅緣”이라고 되어 있어 『의기』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別記』에서는 『광석』과 『약술』의 첫째, 둘째의 인연의를 『疏』로부터의 원용으로 하고, 세 번째 인연의를 『別記』 독자의 생각으로 구성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종밀과 담광으로부터 인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로부터 『別記』가 담광의 『광석』과 『약술』에 상당히 의거함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종밀의 『원각경대소』가 인용됨을 밝힘으로써, 『別記』의 저술시기는 宗密의 『대소』가 저술되는 823년 이후에서 최치원의 『법장화상전』이 저술되는 904년 사이에 성립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IV. 결론

『別記』는 904년 처음 알려졌으며, 인용 등을 통해 볼 때 동아시아에서 신라에서는 10세기초, 일본에서는 10세기 초부터 에도시대까지, 중국에서도 10세기 초부터 13세기까지 유통이 확인된다. 또한 『別記』는 일반적으로 법장의 저술로 승인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과문과 어구를 통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성립시기를 검토한 결과 『別記』는 『삼보장』의 「현의장」 등 가운데 일부의 항목을 전제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십이문론소』, 『무차별론소』를 인용하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법장의 저술일 경우 성립시기를 690년 이후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인용방식 및 법장 사상의 연속성이라는 문제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었고, 검토결과 『別記』와 담광의 『광석』과 과문 및 어구에 상당히 유사점이 발견되었으며, 간략화 정도를 통해 보았을 때 『別記』가 『광석』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7식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기별기』가 법장의 진찬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후 지홍의 문헌과의 관련을 통해 『別記』의 성립은 澄觀이 『四分律鈔搜玄錄』에 서문을 작성한 766-779년 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결정적으로 如疏의 ‘疏’가 종밀의 『원각경대소』 등과 관련됨을 밝혔다.

904년에 처음으로 『別記』의 존재가 최치원에 의해 알려진 것을 고려할 때, 『別記』는 宗密의 『大疏』가 저술되는 823년에서 『법장화상전』이 쓰여진 904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戒環

1996. 『中國華嚴思想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김성철

2015. 「원효의 제7말나식관 - 원효 초기 저술에 나타난 제7말나식의 인식대상
논증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2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張雪松

2016. 「河西曇曠과 唐譯『大乘起信論』」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동
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관』, 서울: 여래출판사.

池田將則

2012. 「杏雨書屋所藏敦煌文獻『大乘起信論疏』(擬題, 羽333V) について」 『불
교학리뷰』 12권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大塚紀弘

2010. 「高山寺の明恵集團と宋」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제20호.

佐藤達玄

1978. 「行事鈔六十家攷(二)」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36집.

滋野井恬

1969. 「唐北京石壁寺傳奥考」 『大谷學報』 48-4호.

清水光幸

1985. 「法藏『大乘起信論別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3-2호 東
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清水明澄

2007. 「大日經」의 注釈書의 書誌學的研究 『密敎文化』 219호, 高野山大学
大学院.

『佛書解説大辭典』

1933.

望月信亨

1922. 『大乘起信論之研究』 金尾文淵堂.

山本匠一郎

2012. 『『大日經』の資料と研究史概観』 『現代密教』 第23号, 智積院.

吉津宜英

1991. 『華嚴一乘思想の研究』, 東京: 大同出版社.

Abstract

Investigation into the Period when *yijibieji* (義記別記) was Written

Cheonhak Kim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a new perspective on Fazang's *yijibieji* (起信別記), which has been analysed questioned since the Edo period. *Yijibieji* was first recorded in Fazangheshangzhuàn (法藏和尚傳), which was written by Choichiweon (崔致遠) in 904, and was revised in Enochoroku (圓超錄), the first Japanese list, in 914. However, *yijibieji* was first quoted in the Seokhwaecomkyobungiwontongcho (釋華嚴教分記圓通鈔) of kyunyo (均如) who was active in the early Goryeo period. Zixuan (子璿), of China, does not use quotations, but it is almost certain that he refers to *yijibieji*. And Junko (順高), of the Japanese Kamakura period, wrote a commentary on Fazang's *yijibieji*. Thus, it can be seen that *yijibieji* has been circulated and quoted in East Asia since the 10th century.

In modern times, Mochizukishiko (望月信亨) published a study denying

that *yijibieji* is a work of Fazang. However, later researchers tend to regard Fazang to be the author of *yijibieji*.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authorship of *yijibieji* by attempting to solving these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entences. Tanguang (曇曠), a Fashiang scholar from Dunhuang, wrote *Chishinrungleangshu* around 763. Zongmi, a Huayen scholar of the Tang period, wrote *yuanjuejingtashu* (圓覺經大疏) around 823. And Choichiweon wrote *Fazangheshangzhuan* in 904. I therefore presume that *yijibieji* was written during this same period.

Keywords : Fazang, Zongmi, Choichiweon, *yijibieji*, *yuanjuejingtashu*

2017년 11월 9일 투고
2017년 12월 4일 심사완료
2017년 12월 5일 게재확정